

다산포럼



박진
상지대학교 명예교수

요즘처럼 말이 사납고 거친 때 드물었던 것 같다. 말의 흥수다. 자신을 드러내지 못해 몸부림을 친다. 상처 주기와 편 가르느 말들이 멈출 줄 모른다. 말의 낭비이다. 침묵의 용기가 필요한 시기이다.

사람이 태어나 말을 익히는 데는 2년이 걸리지만, 침묵을 배우려면 그 30배의 시간이 든다고 한다. 고요한 물은 깊이 흐르고, 깊은 물은 소리가 나지 않듯(靜水流深, 深水無聲) 고요함 속에 참진리가 깃든다. 침묵은 '발을 갈고 씨앗을 심은 뒤에 새싹을 기다리는 것처럼' 인내와 희망을 요구한다. 흔히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말이 적고, 말 많은 사람은 아는 게 거의 없다고도 한 것은 침묵의 경험적 실체를 이룬 말이다.

중국 위(魏)나라 문후(文侯)와 전설적인 명의 편자(扁鵲)과의 문답으로 침

침묵과 낮춤 그리고 제자리 찾기

묵의 생생한 현장을 보자. 문후가 묻는다. “그대 삼형제들은 모두 의술에 정통하다 들었다. 누가 가장 뛰어난가?” 편자가 답한다. “말형이 으뜸이고, 둘째 형이 다음이며, 제가 가장 떨어집니다.” “그런데 왜 그대의 이름만이 세상에 높이 알려졌는가?”

“말형은 병을 미리 알아 병의 뿌리를 제거합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자신의 병을 치료해 주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니다. 둘째 형은 병이 든 초기에 치료하니 환자들은 대수롭지 않은 병을 고쳤다고 여깁니다. 세상에 이름을 떨치지 못하는 까닭이지요. 저는 병이 심각해진 뒤에 다스립니다. 환자들이 저의 시술을 직접 보기에 제 의술이 뛰어난 것으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진실로 얹어 짝 찬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려고 안달하지 않으며, 침묵 속에 오히려 참된 가치의 위대함이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일화이다.

낮춤의 오묘한 의미가 담긴 말로 '곡신불사'(谷神不死)가 있다. '계곡은 어떤 경우에도 마르지 않는다'는 뜻이다. 극심한 가뭄으로 온 세상이 타들어 가도 마르지 않는 곳이 바로 계곡이다. 그래서 계곡은 마르지 않는 강인한 정신을 지니

고 있다고 한다. 왜 그럴까? 가장 낮은 자리에 머물기 때문이다. 낮은 곳을 찾는 겸손(謙遜)이 가장 오래 살아남는 생존의 이치이다. 노자가 말한 곡신(谷神)의 정신이다.

곡신의 의미는 다양하지만, 견고하고 딱딱한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유연한 것이 말 뿌리이다.

'도덕경'에서 부드럽고 겸손한 것이 군선 것보다 낫다고 하면서 "계곡의 정신은 마르지 않는다"고 했다.

즉, 이는 '부드러움이 강한 것을 이긴다'라는 공자의 말씀과 상통(相通)한다. 노자가 만들려는 세상은 위압적이고 군림하는 게 아니라 부드러움과 겸손이 존재하는 계곡 같은 세계다. 강한 것이 으뜸이라는 오만한 확신이 지배하는 요즘, 부드러움과 낮춤의 정신이 그 폐해를 치유할 참다운 지혜라고 생각한다. 진정한 승리는 시간이 흐른 뒤에 결정된다. 낮춤과 겸손을 다시 생각해 보면 어떤 까?

오래전 모 교수께서 17년간 혼자 전국을 돌아다니며 채집한 야생 들꽃(1100과 4439종)의 씨앗을 모아 '토종 들꽃 종자은행'을 설립한 이야기가 신문에 실린 적이 있었다. 한때 이 기사로 인터넷 공간이 뜨겁게 달궈지기도 했다. 기사의 말미

에 실린 '잡초란 상황에 따라 붙여진 의미지, 원래 잡초란 없습니니다'라는 그분의 해설이 백미였다. 당시 받은 감동은 마치 감전이라도 된 것처럼 아직도 그 충격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그분의 말씀은 이어진다.

"엄밀한 의미에서 잡초는 없습니니다. 밀밭에서는 벼가 잡초고 보리밭에서는 밀이 잡초입니다. 상황과 자리에 따라 잡초가 되는 것이죠. 산삼도 원래 잡초였을 겁니다." 그 귀한 산삼도 밀밭에 자라다면 영양없이 잡초라는 것이다. 제 자리가 아니면 산삼도 잡초라니 그 반전이 놀랍다. 뻔해야 할 자리가 아닌데 다리 뻗고 공개면 잡초가 된다는 일집이다. 17년의 긴 시간 전국 산야를 누비면서 깨달은 지혜가 이 하나뿐이었을까마는, 자라다툼에 모든 것을 거는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모습을 질타하는 듯한 깨우침이 정곡을 찌른다.

사실, 타고난 남다른 자질을 세상에 제대로 펴 보지도 못하고 잡초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 보리밭에 난 밀처럼, 뻗어야 버려지는 그 삶들이 안타깝다. 그러나 그들도 자리를 가지지 못해 일시 잡초로 보였을 뿐일 것이다.

지금 이 자리가 내 제자리인가? 라는 물음이 절실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社說

20대 국회 지역 현안 처리 끝까지 최선을

20대 국회 임기 종료일이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나 4·15 총선 직후 문을 연 마지막 임시국회는 지금까지 코로나 19 추정 예산안을 놓고 공전을 거듭해 왔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 지역 주요 현안 관련 각종 법률안이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역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법률안은 광주 11개, 전남 13개 등 20여 개에 달한다. 광주의 경우 5·18 역사를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 혹은 낱조·비방·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일부 개정안' 여섯 건이 대표적이다. 이들 법안은 올해 5·18 40주년을 맞아 조기 통과가 기대됐지만 여태껏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도 국방위원회에서 발이 묶였다. 광주 군 공항 이전에 국가 지원을 규정해 이전 부지의 주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

다. 광주시가 유치를 위해 힘을 쏟고 있는 한국문화기술 연구원 설립을 위한 '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전남 도정 현안 관련 주요 법률안들 역시 마찬가지다. 무소속 정인화(광양·곡성·구례) 의원 등 14명이 2017년 발의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보상에 관한 특별법'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잠을 자고 있다. 이밖에 국립 심뇌혈관질환센터와 섬 발전연구원 설립을 위한 법안들도 소관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다.

20대 국회의 임기는 다음달 29일까지로, 이들 법안들이 이번 임시국회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이렇게 되면 21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부터 모든 절차를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따라서 지역 의원들은 임기 만료 이전에 광주·전남 현안 관련 법안들을 최대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지역 발전을 위한 마지막 소명이다.

상생재단 설립 '광주형 일자리' 돌파구 되나

내일은 현대차를 주축으로 한 광주글로벌모터스 주주들이 사업 불참을 선언한 노동계를 상대로 복귀와 사업 정상화를 요구한 최후 통첩일이다. 내일까지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에서는 침체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양질의 대규모 청년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최악의 상황만은 피해야 한다며 서로 한 발짝씩 양보를 촉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광주시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단초를 마련해 주목된다.

시가 가장 '광주상생 일자리재단' 설립을 제안했는데 이에 대해 노동계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광주시에 따르면 이용섭 광주시장과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은 어제 오후 한 국노총 광주본부에서 자리를 함께하고 가장 '광주 상생 일자리재단' 설립 방안

을 논의했다고 한다. 여기에 윤 의장이 공감을 표시한 것이다.

'광주상생 일자리재단'은 광주문화재단이나 복지재단과 유사한 형태의 일자리와 노동 분야 재단법인이다. 일자리재단 단장은 노동계에서 추천하고 사무국장은 공무원이 아닌 개방형 4급으로 선임하게 되는데 여기에다 이들은 의견을 같이 했다고 한다.

그러나 '광주상생 일자리재단' 설립에 대한 이들의 의견 일치에도 불구하고 노동계의 대화 복귀가 곧바로 실현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노동계의 내부논의 및 의사 결정 과정 등을 감안할 때 좀 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내일을 최후 시간으로 제시했던 광주글로벌모터스 주주들도 5월 10일을 전후로 주주총회를 열어 사업 참여 여부를 의결할 계획이라니 아무쪼록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무산되지 않도록 한국노총의 바람직한 결정을 기대한다.

청춘 특·특



허수현
조선대신문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행사, 자격증 시험, 채용 일정 등이 대부분 멈춰 섰다. 강의도 온라인 비대면 강의로 진행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집 안에만 머물러야 한다. 가족 외에 사람을 접하기 힘들, 접해서도 안 되는 상황이 되었다.

일상이 파괴된 지금, 우리 도처에 무기력증이 따리를 틀고 있다.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도 만들어졌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이 자신도 언제 감염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무기력과 불안이 시달리는 감정을 의미한다. SNS 피드에 우울과 불안, 무기력, 의

무기력의 늪 속, 반짝임을 잊지 않는 법

심, 분노의 말들을 끊임없이 쏟아낸다. 정부와 기관들은 사람들의 '코로나 블루'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각종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욱 격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일단 무기력증을 의심해 봐야 한다.

내가 생각하는 무기력증의 원인은 세 가지다.

첫째, 세세한 일에 열정을 쏟아서 해야 할 일에 의지가 생기지 않는 것이다. 만약 점심 메뉴를 아주 신중하게 골랐거나 별거 아닌 것에 감정을 쏟았다면 그 하루는 정말 피곤할 것이다. 그렇게 지나다 보면 어느 순간 의지가 생기지 않는다. 모든 상황에 지친 것이다.

두 번째는 온 힘을 다했지만 일이 실패했을 때다. 실패를 마주하면 허탈함과 두려움이 쏟아져 내릴 정도로 밀려온다. 그런 감정을 이겨내야만 방어적인 태도가 만들어진다. 방어적인 태도는 그 이상의 도

전을 불필요하다고 느끼게 만든다. '코로나 블루'도 비슷한 맥락이다. 열심히 살았던 일상이 의도치 않게 없어질 때, 열심히 준비했던 자격증 시험이나 취업 활동이 코로나로 인해 좌절될 때 허탈감과 두려움으로 무기력을 느끼게 된다.

세 번째는 자기 생각에 갇힐 때이다. "내가 뭐 하는 거지, 왜 하는 거지?" 답을 찾기 어려운 질문들에 갇혀 답을 찾아내고 있다. 찾은 답에 의심을 품고 다른 답을 찾으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그렇게 빠져나올 수 없는 생각의 늪에 빠져 아무것도 안 하고 싶거나 하기 싫어진다.

무기력의 힘은 강력해서 계속 커지다 보면 우리를 잠식해 버릴지도 모른다. 무기력함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조심스럽게 추천하고 싶은 방법이 있다.

우선 앉아 있는 시간을 늘려 보자. 책상에 앉으면 언제 쫓아 낚는지 지역 안나는 책들이 눈에 보이고 한동안 잡지 않았던 펜도 보일 것이다.

전자 기기보다는 종이와 펜을 써보자.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오늘 한번 해 볼까' 하는 일들을 적는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꾸밈 없는 문장이다. 평가를 쓸 때 강박적으로 예쁘게 쓰거나 좋은 문장을 쓰려는 사람들이 많다. 최대한 머릿속에서 있는 말을 그대로 써 보도록 하자. 낙서도 곁들여 가며 글이리기 보단 간단한 메모처럼, 꼭 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지 말고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면 다음 문장을 생각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기분을 좋게 만든다. 종이 넘기는 소리와 문장을 되뇌는 자신의 목소리에 괜히 마음이 생기가 돈다. 하루하루 그런 시간을 늘려 가며 졸업 사진도 꺼내 보고, 책 머리말도 훑어보고 창문도 열어 보는 것이다.

항상 열심히 하자고 부추기고 싶지는 않다. 다만 도전하는 나의 모습, 좋아하는 일을 하며 반짝였던 눈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목표를 향한 오르막길의 산들 바람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나도 모르게 찾아온 무기력증에 잠식되지 말자.

기 고

화재 위험 높은 논·밭두렁 태우기 근절해야

한 모든 잡초를 태우는 풍습을 논두렁 태우기라고 한다.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쥐를 잡고 타고 남은 재가 농사에 거름이 돼 곡식의 새싹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한 소망이 담겨 있다.

하지만 논두렁과 밭두렁을 태우는 일이 연중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에 물리면서 화재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화재 발생 원인은 담배꽂초 10.1%, 쓰레기 소각 14.9%, 논·밭두렁 태우기 45.7% 등의 순이다. 또한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2019년) 발생한 산불은 전국적으로 총 7737건에 달하고 인명 피해도 344명(사망 47명, 부상 277명)에 이른다.

이처럼 논·밭두렁 태우기와 쓰레기 소각은 불철 화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논두렁과 밭두렁을 태우는 주목적은 해충을 박멸하는 것이다. 하지만 농촌진흥청에서 최근 논두렁 0.75㎡에 서식하는 미세 절지 동물을 조사한 결과 해충 비율은 5.5%에 불과했

고 익충 비율은 무려 94.5%로 나타났다. 게다가 논두렁을 태우면 1주일 뒤 같은 지역을 조사한 결과, 논두렁에 돼 곡식의 새싹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한 특히 유기물을 분해해 생태계의 물질 순환에 큰 역할을 하는 토독기는 82.1%가 감소하는 등 익충의 비중이 크게 줄었음이 확인되었다고 한다.

불법 소각 행위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논·밭두렁 태우기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관내 소방관서에 반드시 신고한 뒤 마을별 공동 소각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특히 산림 안이나 100m 이내 인접 지역에서 쓰레기 소각은 금지돼 있다. 반드시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화재 예방 조치를 한 뒤 태워야 한다.

산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번지는 속도가 빠르고 아주 위험하다. 소방관들도 화재 진압때 연기 질식·화상 등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한 재산상 피해 및 인명 피해와 미세먼지, 대기 환경 오염 등으로 인한 복구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은 엄청나다.

논·밭두렁을 태우던 중 인근 산과 심지가 먼지까지 불이 옮겨 붙어 산불과 큰 인명 피해를 일으키는 걸 우리는 매년 접해 왔다. 더욱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병해충 방제에도 큰 효과가 없고 오히려 거미 등 해충의 천적들을 더 죽이게 돼 병해충이 더 확산된다.

따라서 논·밭두렁 태우기는 삼가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봄철은 겨우내 쌓여 있던 마른 낙엽과 건조한 바람 등으로 작은 불씨도 산불로 번지기 쉽다. 특히 올해는 예년에 비해 산불이 급증하고 있는 데다 코로나19로 소방 인력마저 피로가 누적되어 그 어느 해보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우리의 소중한 자원을 인삼을 보호하고 재산과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논·밭두렁 태우기는 이제 마땅히 근절해야 한다. 성숙한 시민 의식과 준법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산림을 화재 없이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모두가 동참하기를 희망한다.

無等鼓

지난 25일은 '세계 펭귄의 날'이었다. 온난화와 환경오염 등 생태계 파괴로 점차 사라질 위기에 처한 펭귄을 보호하고 기억하기 위한 날이다.

4월 25일을 전후해 남극의 펭귄들이 북쪽으로 이동한다는 점을 감안해 이날을 세계 펭귄의 날로 지정했다고 한다. 어린 이들의 대동영으로 자리 잡은 '뽀로로'(만화 주인공)로부터 시작된 최근에는 남극에서 '스타가 되기 위해' 한국에 왔다는 설정으로 폭발적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펭수'에 이르기까지 펭귄 캐릭터는 전 국민

코로나와 펭귄

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하지만 남극의 펭귄이 처한 현실은 상상 이상으로 가혹하다. 온난화로 인해 해류뿐만 아니라 기상에 변화가 일어나 펭귄들의 생활 터전인 빙하의 크기가 점차 작아지고 있다. 여기에 건강보조식품으로 이용하기 위해 크릴유를 남획하면서 펭귄들의 생존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빙하에 붙어 식물성 플랑크톤을 섭취하는 크릴이 지난 40여 년 동안 70% 이상 줄어든 상황에서 최근 남획까지 이뤄지고 있어 당달아 펭귄들의 개체수가 현저히 줄어

들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세계 각국이 국경 봉쇄 조치는 물론 사회적 거리 두기에 나서면서 생태계 복원의 조짐은 물론 대기 환경이 뚜렷이 개선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여우·퓨마·산양·순록 등 각종 동물들이 도심에 출현하는가 하면 멸종 위기종인 바다거북·듀공·플로레 등의 모습도 다시 보이고 있다. 여기에 공장 가동이 줄고 차량 이동이 제한되면서 화학연료에서 발생하는 이산화질소 양

도 크게 감소, 대기의 질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의 활동이 줄어들면서 지구에 잠시나마 숨통이 트인 셈이다. 우리나라의 겨울철 미세먼지 농도 역시 지난해보다 27%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는 전 세계의 경제와 교류를 섣달운시키고 있는 위기의 주범으로 꼽힌다. 하지만 생태계와 환경에 대한 깊은 성찰의 계기가 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지속 가능한 인류의 미래를 위한 또 다른 기회를 맞고 있는 셈이다. /임동욱 선임기자 겸 서울취재본부장 tuim@